

제32호 대한항공 원동기정비공장 윤성인 과장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 추구

하얀 꼬리를 물며 날아가는 비행기는 꼬마시절 최고의 바램이자 동경의 대상이었다. 나도 이만큼 크면 비행기 타고 미국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야지! 꼬마들의 꿈을 키우고 전세계를 하나로 묶어주는 비행기. 이러한 비행기가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들, 그리고 그들의 안전을 책임지며 나아가 전국민의 안전을 돌보는 이가 있다. 대한항공 원동기정비공장의 윤성인 과장이다.


대한항공 원동기정비공장은 1975년에 설립되어 대한항공비행기의 모든 엔진을 점검·수리하고 그동안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그들만의 노하우로 외국항공사의 엔진까지도 수주 받아 점검·정비하는 등 외화 획득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자율안전, 근로자 스스로 깨우쳐야

'자율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는 그는 안전은 강요가 아니며 근로자 스스로 깨우쳐야만 가능하다고 얘기한다. 이에 근로자들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나 타공장에서 발생했던 사례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관련 건의사항을 각각 무기명과 기명으로 제안하는 본사 주관의 SCRS와 CSR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매년 2월 이곳은 안전보건강조주간행사로 분주하다. 전직원을 대상으로 표어를 공모하고, 관리감독자나 근로자집합교육 등 각종 교육이 이어지는가 하면 이광수 공장장을 선두로 하는 노사합동 특별안전점검으로 안전작업에 임하는 직원들의 마음을 다잡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원동기정비공장으로 이어나가고자 함께 노력하는 것이다.

회사 특성상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 외에 미국 FAA 법(연방항공법)에 적용을 많이 받는 이곳에서 윤성인 과장은 안전장려금제, 안전모범직원 포상제도 등을 통하여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로 인한 자율 안전을 정착시켜 오는 10월 19일 달성 예정인 무재해 15배에 박차를 가한다고 얘기한다.

특히 권위의식, 완장문화 등 억압되고 강제하는 것을 싫어하는 그는 가족을 사랑하고 근로자들을 사랑하는 이웃집 형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안전에서 만큼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현장을 향하는 발걸음에 더욱 힘을 쏟는다. 

〈성호연 기자〉